

立教篇

子曰、立身有義 而孝爲本
喪祀有禮 而哀爲本
戰陣有例 而勇爲本
治政有理 而農爲本
居國有道 而嗣爲本
生財有時 而力爲本。

⇒ 공자가 말하기를, 입신의 뜻[義]은 효가 근본이고 장사와 제사의 예는 슬퍼하는 것[哀]이 근본이고, 전쟁에 나아가 공을 세우는 것은 용맹이 근본이며, 정치의 이치는 농사가 근본이 되고, 나라를 보전하는 길[道]은 승계를 잘하는 것이 근본이 되며, 재산을 얻는 시기(방법)는 노력이 그 근본이 된다.

⇒孔子が言うのに立身の義は孝が根本で商売と祭祀の例は悲しむこと[哀]が根本で、戦争に行つて功を立てることは勇猛が根本であり、政治の理は農業が根本になって、国を保全する道は承継がお上手なのが根本になって、財産を得る時期(方法)は努力がその根本になる。

景行録云、爲政之要 曰公與清 成家之道 儉與勤。

⇒ 《경행록》에 이르기를, 정치의 요점은 공정함과 청렴이고 집을 일으키는 방법은 검소함과 근면이다.

⇒ 《景行録》に伝わるのに政治の要点は公正さと清廉で、家を起こす方法は儉しさと勤勉だ。

讀書 起家之本
循理 保家之本
勤儉 治家之本
和順 齊家之本。

⇒ 책 읽는 것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집을 보전하는 근본이고, 부지런하고 검소한 것은 집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화목하고 유순한 것은 집을 편안케 하는 근본이다.

⇒本を読むことは家を起こす根本であり、理に付くことは家を保全する根本で、手まめで儉しいことは家を治める根本で、睦まじくて柔順なことは家を樂にさせる根本だ。

孔子三計圖云、一生之計 在於幼、一年之計 在於春、一日之計 在於寅、幼而不學 老無所知、春若不耕 秋無所望、寅若不起 日無所辦。

⇒《공자삼계도》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으므로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을 갈아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가망이 없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의 할 일을 판단하지 못한다.

古書との出会い 立教篇

⇒ 《孔子三計圖》に伝わるのに一生の計画は幼い時にあって、一年の計画は春にあって、一日の計画は夜明けにあるので幼くて学ばなければ老けて分かることがなくて、春に畑を耕して種を蒔かなければ秋に収穫する見こみがなくて、夜明けに早く起きなければその日のすべきことを判断することができない。

性理書云、五教之目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 《성리서》에 이르기를, 가르쳐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은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되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친구들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 《性理書》に伝わるのに教えなければならない五つ徳目はお父さんと息子は親しくなければならぬし、王様と臣下は義理がいなければならぬし、夫と妻は分別がなければならぬし、大人と子供は順番がなければならぬし、友達は信頼がなければならぬ。

三綱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 삼강(三綱)이란 임금은 신하의 본이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본이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는 것이다.

⇒ 三綱と言うのに王は臣下の本になって、お父さんは息子の本になって、ご主人は妻の本になるのだ。

王燭曰、忠臣 不事二君 列女 不更二夫。

⇒ 왕축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 王燭が言うのに忠臣は二人の王を仕えてはいけぬし、烈女は二人のご主人を仕えてはいけぬ。

忠子曰、治政 莫若平 臨財 莫若廉。

⇒ 충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공평이 제일이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렴이 제일이다.

⇒ 忠子が言うのに国を治めるには公平が一番で財物に臨んでは清廉が一番だ。

張思淑座右銘曰、凡語 必忠信 凡行 必篤敬 飲食 必慎節 字劃 必楷正 容貌 必端正 衣冠 必整肅 步履 必安詳。居處 必正靜 作事 必謀始 出言 必顧行 常德 必固持 然諾 必重慮 見善如己出 見惡如己病。凡此十四者 皆我未深省。書此座右 朝夕視爲警。

⇒ 장사숙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무릇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고 신용이 있어야 하며, 모든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러워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신중하고 알맞게 먹어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똑하고 바르게 써야 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해야 하며, 의관은 반드시 정제되고 엄숙해야 하며,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정되고 점잖아야 한다. 사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 조용해야 하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시작해야 하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들이켜 생각해야 하며, 일상의 덕은 반드시 굳게 가지며, 일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서 응해야 하며, 착한 일을 보면 반드시 자기 일과 같이

여기며, 악한 일을 보면 자기의 질병처럼 생각하라. 모두 이 열네가지는 내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써서 자리 오른편에 붙여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 경계하라.

⇒張思淑の座右銘に言うのに事を言う時は必ず念入りで信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し、すべての行動をする時は必ず信望が厚くて尊敬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食べ物には必ず慎重で適当に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し、字は必ず利口で正しく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顔つきは必ず淑やか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し、衣冠は必ず整肅されて厳肅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し、足つきは必ず安定して大人しくなければならない。住む所は必ず正しく静か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し、仕事をする時は必ず計画を立ててから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し、ものを言う時は必ずそれを実践することができるかどうかを振り替えて思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日常の徳は必ず固く持って、仕事を承諾する時は必ず慎重に思って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し、善良な事を見れば必ず自分の事と一緒に思って、悪い事を見れば自分の疾病のように思いなさい。全てのこの十四個は私がまだ深く悟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だ。これを書いて席の右の方に付けておいて朝夕方で見て警戒しなさい。

范益謙座右銘曰、

-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
-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
- 六、不言淫媾媒戲慢評論女色
-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又人付書信 不可開拆沈滯 與人并坐 不可窺人私書 凡入人家 不可看人文字。

凡借人物 不可損壞不還 凡喫飲食 不可揀擇去取。

與人同處 不可自擇便利 凡人富貴 不可歎羨詆訴毀。

凡此數事 有犯之者 足以見用心之不正 於正心修身 大有所害 因書以自警。

⇒범익겸의 좌우명에 일컫기를,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 오는 보고와 관리의 임명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라. 둘째, 주(州)나 현(縣)의 관리들의 장단점과 득(得)과 실(失)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 셋째, 많은 사람들이 잘못 되게 저지른 악한 일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 넷째, 관직에 나아가는 일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 다섯째,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과 가난이 싫다든가 부(富)를 구한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 여섯째, 음탕하고 실없는 말과 여색(女色)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탐내어 차지하려 한다든가 술과 음식을 뒤져 찾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 남에게서 전해 달라고 부탁 받은 편지를 뜯어 보거나 지체하지 말 것이며, 남과 한자리에 나란히 있으면서 남의 개인적인 글을 엿보아서는 안되며, 남의 집에 찾아 들어갔을 때 남의 글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훼손시키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가려 먹어서는 안 된다. 남과 같은 곳에 있을 때는 자기에게만 편리한 것을 취해서는 안 되고 남의 부귀(富貴)를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말라.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면 이것으로 마음씀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자질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올바른 마음과 몸을 닦는 데 큰 손해가 있을 것이므로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도록 하라.

⇒范益謙の座右銘に伝わるのに

第一、朝廷での利害理解と辺方から来る報告と官吏の任命については言わないこと。

第二、州や県の役人たちの長短所と得と失について言わないこと。

第三、多くの人々が間違ふようにやらかした悪るい事について言わないこと。

第四、官職に進む事と機会に付いて権勢に諂うことに関して言わないこと。

五番目、財物と利益の多くて少なさと貧乏が嫌いとか富を求め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話さないこと。

六番目、淫蕩で不真面目な言葉と女色に関して話さないこと。

七番目、他人の品物を貪って占めようと思うとかお酒と食べ物を探して捜すことに関して話さないこと。

他人に伝えてくれと頼まれた手紙を開けてみるとか手間を取らないようにすること。他人と同じ席に並んでいるのに他人の個人的な文を見ては行けないし、他人の家に捜して入って行った時に他人の文を見てはいけない。他人の品物を借りた時に毀損させるとか返さなければならぬし、食べ物を食べる時は選り分けて食べてはいけない。他人と同じ所にいる時は自分にだけ便利なことを取ってはいけないし、他人の富貴を羨むとか扱き下ろさないこと。若し、この何種類の事を守ることができない者ならこれで心を使うことが正しくないという資質を十分に分かって正しい心と身をぬぐうことに大きい損害があるはずなのでこの文を書いて自ら警戒するようにしなさい。

武王 問太公曰、人居世上 何得貴賤貧富不等。願聞説之 欲知是矣。太公曰、富貴 如聖人之德 皆由天命 富者 用之有節 不富者 家有十盜。

⇒무왕이 태공에게 물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함에 있어 어찌하여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습니까? 원컨대 이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태공이 말하기를, “부귀라는 것은 성인의 덕과 같아서 모두가 천명(天命)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므로 부자는 씩씩이가 절도가 있고 가난한 자는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武王が太公に聞いた。“人が世を生きて行くにあつてどうして貴賤と貧富が選ばないですか?願うのにこれを説明してください。分かりたいです。”太公が言うのに“富貴というのは大人の徳のようで皆が天命によって得られることなので金持ちは金使いに節度があつて貧しい者は家に十種の泥棒があるからです。”

武王曰、何謂十盜。太公曰、時熟不收 爲一盜 收積不了 爲二盜 無事燃燈寢睡 爲三盜 慵懶不耕 爲四盜 不施功力 爲五盜 專行巧害 爲六盜 養女太多 爲七盜 晝眠懶起 爲八盜 貪酒嗜慾 爲九盜 強行嫉妬 爲十盜。

⇒무왕이 말했다. “무엇을 열 가지 도둑이라고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곡식이 제때에 익은 것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 도둑이고, 거두어 쌓는 것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 도둑이며, 할 일없이 등불을 켜놓고 자는 것이 셋째 도둑이고,

게을러서 밭갈이를 하지 않는 것이 넷째 도둑이며, 공력을 베풀지 않는 것이 다섯째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며, 말이 너무 많은 것이 일곱째 도둑이고, 낮잠이나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며, 술을 탐내고 욕망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극심하면 그것이 열 번째 도둑입니다.”

⇒武王が言った。“何を十の泥棒だと言いますか？”太公が答えた。“穀食が適時に煮えたことを取り入れないことが第一泥棒で、おさめて積むことを終えないことが二番目泥棒であり、やる事なしに燈をつけておいて寝ることが三番目泥棒で、怠けて畑を耕すことをしないことが四番目泥棒であり、功力を施さないことが五番目泥棒であり、ひたすら狡くて有害な事だけ行うのが六番目泥棒であり、言葉の数が多いのが七番目泥棒で、昼寝をして寝て朝に遅く起きるのが八番目泥棒であり、お酒を貪って欲望を楽しむのが九番目泥棒で、人を嫉んでやきもち焼くのが極甚ならばそれが十番目泥棒です。”

武王曰、家無十盜而不富者 何如。太公曰、人家 必有三耗。武王曰、何名三耗。太公曰、倉庫漏濫不蓋 鼠雀亂食 爲一耗 收種失時 爲二耗 拋撒米穀穢賤 爲三耗。

⇒무왕이 말했다.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빈곤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공이 대답했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세 가지 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왕이 말했다. “세 가지 소모란 무엇을 말합니까?” 태공이 대답했다. “창고가 새는데도 덮고 막지를 얹아 쥐와 새들이 마구 먹어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소모이고 수확을 거두고 씨 뿌리는 때를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소모이고 곡식을 땅에 흘려 더럽히고 천하게 다루는 것이 세 번째 소모입니다.”

⇒武王が言った。“家に十の泥棒がないのに貧困なことはどうしてそうですか？”太公が答えた。“そんな人の家には必ず三種類の消耗があるからです。”武王が言った。“三種類の消耗と言うのは何を言いますか？”太公が答えた。“倉庫が漏れるにも覆って阻まなくて鼠と鳥たちがでたらめに食べてしまうのが一番目の消耗で収獲をおさめて種を蒔く時を逃すのが二番目の消耗で穀食を地に流して汚して卑しく扱うのが三番目消耗です。”

武王曰、家無三耗而不富者 何如。太公曰、人家 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強 自招其禍 非天降殃。

⇒무왕이 또 말한다. “집에 세 가지 소모하는 것도 없는데 빈곤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그것은 반드시 열 가지 나쁜 것이 있어 그것이 저절로 화(禍)를 불러 들이는 것이지 하늘이 재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 가지란 첫째, 일을 잘못 그르치는 것, 둘째,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 셋째, 미련한 것, 넷째, 실수하는 것, 다섯째, 인륜을 거역하는 것, 여섯째, 상서롭지 못한 것, 일곱째, 종의 행세를 하는 것, 여덟째, 천한 짓을 하는 것, 아홉째, 어리석은 것, 열째, 지나치게 강한 것입니다.”

⇒武王がまた言う。“家に三種類の消耗することもないのに貧困なことはどうしてですか？”太公が言うのに “それは必ず十種の悪いのがあってそれが自然に禍を呼び入れることであって空が災いを与えるのではないです。その十種類というのは第一、仕事を過ち誤ること、第二、仕事を間違って処理すること、第三、愚鈍なの、第四、あやまちをするこ

と、五番目、人倫を逆うこと、六番目、めでたくないこと、七番目、奴隷をなりすますこと、八番目、浅い仕業をすること、九番目、愚かなの、十番目、すぎるほど強いのです。”

武王曰、願悉聞之。太公曰、養男不教訓 爲一錯 嬰孩不訓 爲二誤 初迎新婦不行嚴訓 爲三痴 未語先笑爲四失 不養父母爲五逆 夜起赤身 爲六不詳 好挽他弓 爲七奴 愛騎他馬爲八賤 喫他酒勸他人 爲九愚 喫他飯命朋友爲十強。武王曰、甚美誠哉 是言也。

⇒ 무왕이 말한다. “원컨대 그 자세한 말을 모두 듣고 싶습니다.” 태공이 말한다. “자식을 낳아 기르기만 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이 첫번째의 일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되 아이 때부터 교훈을 시키지 않는 것이 두 번째의 열을 잘못 처리하는 것이고 처음에 새색시를 맞이했을 때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세 번째의 미련한 일이고, 남이 말하기 전에 먼저 웃음부터 웃는 것이 네 번째의 실수이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로 인륜에 어긋나는 짓이고, 밤중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로 상스럽지 못한 짓이고, 남의 무기를 자기가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 번째로 종의 행세를 하는 것이고, 남의 말을 빌려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 번째로 천한 짓이되 남의 술을 얻어 먹으면서 그 술을 남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 번째로 어리석은 것이며, 남의 밥을 얻어 먹으면서 친구를 명령하는 것이 열 번째로 지나치게 강한 것입니다.” 무왕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답고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라고 했다.

⇒ 武王が言う。“お願いなのでその詳細な言葉を皆聞きたいです。”太公が言う。“子を生んで育ててばかりして教育をさせないことが一番目の事を過ち誤ることだが子供の時から教訓をさせないことが二番目の事を間違って処理することで初めに嫁を迎えた時厳しく教えないことが三番目の愚鈍な事で、他人が言う前に先に笑いから笑うことが四番目の間違いで、親を供養しないことが五番目で人倫に逆らう仕業で、夜中に裸で起きるのが六番目で良くないことで、他人の武器を自分が使うのが好きなことで、七番目で奴隷になりすますことで、他人の馬を借りて乗るのが好きなのが八番目で、浅仕業だが他人のお酒を貰い食いしながらそのお酒を他人に勧めるのが九番目で愚かなことであり、他人のご飯を貰い食いしながら友達を言い付けるのが十番目ですぎるほど強いのです。”武王が言うのに“まことに美しくて信じられるお話です。”と言った。